

문화포커스

김제경찰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등 점검

김제경찰서(서장 황대규)는 개학철을 맞아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36개소에 대해 후서기 폭염으로 인한 노후되고 훼손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노면표시 퇴색, 신호 운영 시간 적정여부,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파손, 안전표지, 미끄럼방지시설, 노상작지물 등 어린이 통행에 불편을 주는 시설물을 학교개학 전 개선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

김수찬 교통관리계장은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구역내 교통안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교통안전 교육 실시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절대안전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위반행위 대해서는 단속도 병행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의식 개선과 안전생활 습관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문화예술회관서 20일

'하늘을 나는 피터팬' 공연

무대 위에서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피터팬의 화려한 등장과 함께 다양한 캐릭터의 출연으로 어린이들을 상상속으로 이끄는 가족 뮤지컬 '하늘을 나는 피터팬' 공연이 오는 20일 오후 2시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풍요로운 감동적인 무대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수준 높은 뮤지컬 배우들의 라이브 공연을 통해 관객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작품으로 연극적 상상력에 재미있는 볼거리를 더한 연출 기법을 도입하여 만든 공연으로서 가족 뮤지컬로 손색없는 아름다운 음악과 신나는 노래와 춤이 그 감동을 더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35사단 정읍연대, 22일부터

'연대 전술훈련평가' 실시

육군 35사단 정읍연대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UFC연습과 연계해 28일까지 '연대 전술훈련평가'를 5일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침투 및 국지도발과 전시 전환, 전진전 등의 위기상황을 가정해 정읍연대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통합 방위작전 수행질차와 작전수행능력을 집중적으로 점검받게 된다.

특히, 도심지역 테러대비훈련, 재난시 주민대피훈련, 대량전상자 처리훈련 등의 실제훈련과 적 침투예상지역과 예상 도주루에 대한 군·경 합동검문순 운동 및 검문, 예비군 동원훈련 등이 실시된다.

군 관계자는 "훈련간 비스타치널이나 관공서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면 가까운 군부대(1661-1133)로 신고해 줄 것과 훈련으로 인한 차량혼잡 및 소음으로 인해 다소 불편을 가지더라도 주민들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보건소, 주민과 금연캠페인

김제시보건소는 지난 16일 김제시 관내 아파트 및 공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피해, 금연구역 홍보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 금연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번 금연캠페인은 아파트 통장과 보건소 직원 20여명이 아파트주민 및 공원이용자를 대상으로 금연홍보물을 배부하여 간접흡연 피해 등 금연구역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담배꽂이 없는 아파트를 만들기 위하여 화단 등에 버려진 담배꽂이를 무더위 속에서 분장님들과 함께 주우며 금연 홍보를 행동으로 보여 주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이번 이견식 김제시장의 국회 및 현장 방문 등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국가예산 지원을 협력하기로 약속 받아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제육교 재가설 등 국비지원 요청

이견식 시장, 국민의당 김종희 의원 등 찾아 현안사업 예산확보 총력

이견식 김제시장은 17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 예결위위원인 김종희 의원(김제·부안, 국민의당)과 이춘석 의원(익산갑, 더불어민주당) 및 정운천 의원(전주을, 새누리당) 등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2017년도 국가예산 지원 및 시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였다.

이 시장은 지난 13일 정동영의원(전주병, 국민의당)과는 김제시청에서 면담을 통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고 김제 육교 재가설 현장 등을 직접 방문 하였다.

이번 국비지원을 요청한 주요사업은 김제육교(과선교) 재가설(180억원), 기업공공활용 종자기공저리센터 구축사업(3억원), 2017 국제중지산업 박람회 개최(7억원), 용지 협업축매입 및 생태복원을 위한 '새만금특별관리지역지정' 등이며 현안사업으로는 새만금국제공항 조성사업, 새만금수목원조성사업 조속한 여타공과 및 국비지원, 호남선 KTX 김제역 정차, 김제공항부지관리전환 및 국가중지클러스터조성, 새만금개발청 청사 이전, 새만금 대체 김제어항 신규조성 등이다.

특히 김제육교 재가설은 재난 위험 시설로 판정 받은 지 5년이 흐르도록 방치되어 있고 2차선 교량은 하루 2만여대가 통행하는데다 병목현상까지 더해져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조속히 해결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번 국회 및 현장 방문 등으로 김제 현안 및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국가예산 지원을 협력하기로 하여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영란법’에 농축산물 별도기준 마련을”

정읍시·축산 관련 단체 촉구

정읍시·축산 관련 단체는 1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 방지 대책회의를 열었다.

대책회의에는 김생기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순정축협 정읍지점, 단풍미인한우영농조합법인, 정읍시 축산연합회를 비롯한 13개 단체가 참여해 내달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예상 피해와 소비자 동향,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와 축산 관련 단체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정읍지역 한우 농가 피해 예상액은 연 61억원에 달한다. 단가가 높은 한우 고기는 선물세트 구성할 경우 높은 가격으로 형성돼 김영란법에 저촉, 결국 매출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한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격 기준을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에서 음식물 5만원, 선물 1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농축산물 피해분야의 현장여건이 수렴되지 않아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농축산업 피해 발생이 명백히 예

견된다"며 '김영란법' 적용 대상 품목에 농축산물을 제외할 수 있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는 축산 관련 단체의 입장이 반영된 건의문을 빠른 시일 내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해 예방 대안으로 단기적으로는 한우 선물세트의 중량 조절은 물론 불고기 세트 구성 등 제품을 다양화할 것과 장기적으로는 유통 비용 절감에 나서 단풍미인 소꿉물 등을 활용한 '원스톱 소꿉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현장점검

김생기 시장, 정책간담회

김생기 시장은 17일 농업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 사업장과 인근 기업체를 방문해 현장 점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양심목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과 지난해 건립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정읍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 그리고 정읍 제3산업단지 기업체 등을 방문했다.

소관부서장으로부터 사업의 진행상황과 추진계획 등을 보고 받은 김시장은 "사과와 배, 복숭아 등의 유통업체 출하 시 비파괴당도센서 측정 여부가 필수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타 지역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에 따른 시설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농업 부서 업무 공유와 협업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김 시장은 또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게 될 고모네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맞춰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구성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하고 다양한 품목을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시장은 인근에 있는 정읍 제3산업단지에는 자동차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주)두상에스비텍을 방문 기업 애로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업체들의 약취 저감 노력과 시의 강력한 단속으로 약취 발생이 크게 줄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약속하고, 올해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 15만명 회복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정읍의 농산물 산지 유통 거점화'와 '전국 제일의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사랑장학재단에서는 올해도 명문대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역 중학생 44명 고려대 탐방

김제시사랑장학재단, 명문대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김제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이견식)은 관내 중학생 44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 고려대학교를 방문 새로운 꿈과 비전을 찾는 명문대 교육문화 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명문대 탐방을 희망하는 관내 중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한국 최초의 민간인에 의한 근대적 학문의 발상지 고려대학교와 학교 시설들을 방문 짧은 시간이 나마 대학 생활을 직접 경험해 보는 시간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다른 대학과는 차별화된 고려대학교만의 자

랑거리를 '여울'이라는 학생 홍보대사 선배들을 통해 직접 듣고 디지털도서관 등 여러 시설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국보급 문화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거대 박물관, 백주년기념 관 건학은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평소 말로만 듣던 고려대학교를 직접 볼 수 있어 좋았으며 명문대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고려대학교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었던 유익했던 시간들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character.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